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에 관한 연구
-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중심으로 -

전미경*¹⁾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f 'Families' as presented during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in Middle School: Focusing on the 'The Changing
Family' of the 2007 Revised Curriculum

Jun, Mikyung*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families as presented on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of middle school. To do this, I analyzed the 2007 revised curriculum of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Changing Families,' in 11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8th grad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amily-related chapters are expanded compared with the previous curriculum i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In addition, the new version emphasizes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change in families to improve the family life of adolescents. Second, in the 11 type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the focusing was on the meaning of the family, the family structure, the function of the family, family roles and family values. There were also no major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development. Third, in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the family was defined as the 'basic group of society', 'a group composed by blood relationships, marriage and adoption', 'an affective group' and 'cohabiting group'. At the same time,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the description of the family was overly romanticized. Such a description of the family does not match the individual family experience of an adolescent. Fourth, all of textbooks dealt with the diversity of the family structure, such as

1) 교신저자: Jun, Mikyung,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26, Pil-dong 3-ga, Chung-gu, Seoul, 100-715, Korea
Tel: 02-2260-3889, Fax: 02-2265-1170, E-mail: mkjun@dongguk.edu

2) 이 논문은 2011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single-parent families, remarriages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with these types of families are excessively emphasized, which can result in students having stereotypical images of specific family types. Fifth, the explanation of the function of the family was similar among textbooks. The importance of intergenerational cooperation and gender equality was also emphasized. However, such a concept is not considered as proper in a modern society. Thus, the description of a family based on the nuclear family should be sublated. In addition, the explanation of families overall should be developed in such a way that adolescents can interpret their own family experience rather than as an enlightening declaration of the family which disregards the dynamic relationships individual families actually experience.

Key words: 가족 개념(family conception), 가족 형태(family structure), 가족 기능(family function), 가족 가치관(family values.), 가족에 관한 고정관념(stereotype of families),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practical problem-based curriculu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족’을 다루는 대부분의 가족학 개론서는 가족의 ‘정의(definition)’에서부터 가족을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가족 개념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소개한다거나(박경란, 2001), 가족의 정의를 전통적·현대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한국 가정상담교육연구소, 2010). 또는 조정문·장상희(2007)처럼 선행연구에 기대어 나름대로 가족을 정의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론서들은 가족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역사적·문화적 다양성을 초월해 가족의 개념을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음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것은 ‘가족’에 대한 의미나 관념이 현실에 존재하는 실증으로서의 ‘가족’과 상충될 경우 가족구성원의 가족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학문적 필요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상의 가족생활은 법을 포함한 사회 제도에 의해 규정된 가족 정의에 의해 크게 좌우 될 뿐만 아니라 개인 자신의 가족생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

사하는 가족에 관한 이해는 개인 스스로가 혹은 사회가 규정한 가족 정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사회의 ‘가족’ 정의 및 바람직한 가족상 규정에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이다. 그런데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교과서의 고유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즉 지식 내용에 대한 원론적 교수·학습 기능을 전제로 한 교전적(敎典的) 교과서, 교육내용의 표준적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표준적 매체로서의 교과서,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제도 매체로서의 교과서 등의 여러 관점이 있다. 이 가운데 표준매체로서의 교과서 관점은 교과서가 추구하는 교육목적의 보편성 원리에 기준을 두어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교과서의 내용이 통치자의 권력 근거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서가 바람직한 인간 육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표준적인 내용을 습득함으로써 학교가 문화 내용을 전달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이종국, 1991).

교과서가 가진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나라처럼 학교교육이 공교육 체제를 완비하지 오래되고 교과서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발행되는 경우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 힘입어 지금까지 ‘교과서’를 텍스트로 한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되었고, ‘가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은 특

히 기술·가정교과의 중요한 학습내용이기에 교과서와 가족을 연계해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으며(고상옥 외, 2007; 김명자, 2000; 김민혜, 2010; 김서현 외, 2011; 김자영 외, 2008; 김현민, 2007; 손현희, 2009; 윤인경, 2004; 2006; 윤인경 외, 2005; 이미영 외, 2010; 이민정 외, 2010; 전미경, 2004; 2005; 정수경, 2004; 최정혜, 2002), 타교과의 경우는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사회교과서 내 '가족'의 모습을 추적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강운선, 2010; 이현지, 2005).

한편, 100여년이 넘는 학교교육 역사 속에서 가정교과의 교과명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지금의 '기술·가정' 교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교과명의 변화와 무관하게 가정교과의 변치 않은 학습 내용의 하나는 '가족'에 대한 이해이다. 가족 이해의 중요성은 교육과정 별 강약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과에서 '가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학습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제1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인 '가정생활'의 이해를 시작으로 최근 공시된 2009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내 제1차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특히 2007년 개정된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은 최근의 가족 변화를 실증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하였다. 즉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 현상의 심화, 가족 갈등의 한 일면인 이혼율의 증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지표인 가족생활 양식의 다양화 등의 사회 변화를 언급하면서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교과의 교육적 역할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207, 이하 '해설서, 207'로 표기). 기술·가정 교과는 '가족' 그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교과라는 점에 주목할 때,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내용은 '학교'에서, '교과서'라는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자율적으로 정립하려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과에서 '가족'이 어떻게 재현되어야 하는가하는 것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07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의한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명시적 내용과 이것이 의미하는 잠재적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즉 기술·가정 교과에서 '가족'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으며, 또

그 설명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의도된 혹은 의도되지 않은 효과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술·가정 교과서를 '가족'의 측면에서 분석한 선행 연구의 흐름을 제7차 교육과정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과서의 전체 체제와 구성에 초점을 두거나(최정혜, 2002; 김현민, 2007; 윤인경, 2006), 구조기능론이나 건강론적 관점으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거나(양정혜, 김지경, 2002; 김자영, 조병은, 2008),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추적하는(백정원, 2011) 등의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실천적 추론이나 실천적 문제 중심의 관점으로 특정 단원의 본문, 활동과제, 학습목표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성희 외, 2007; 이민정 외, 2010; 이진희 외, 2008). 이처럼 기술·가정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외형적 측면이 강조되거나 특정 관점에 대한 교과 내용의 기술 혹은 학습내용의 연계성에 주목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가족'의 하위 영역, 즉 가족의 정의와 의미, 기능, 형태, 가치관, 바람직한 가족 등에 주목하여 교과서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11종의 기술·가정 교과서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분석하였다. '변화하는 가족'이 속해 있는 8학년 '가족의 이해' 대단원은 이 단원 외 '가족관계' 중단원이 있으며, 교육과정 해설서에 명기된 '변화하는 가족'의 내용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 형태, 가치관,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양성평등한 가족 가치관을 형성한다"이다(해설서, 235).

2007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를 분석 텍스트로 삼고 있는 이 연구는 교과서에 실린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족의 재현을 추적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교과서의 본문, 활동, 참고 자료 등 교과서에 실린 모든 내용을 질적, 양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차용하면서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명시적 내용을 정리하였고, 동시에 잠재적 내용을 추적함으로써 가족의 설명에 함축된 의미와 모순을 드러내고자 했다. 교과서의 단어나 문장을 절취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은, 단어와 문장이 텍스트가 가진 전체 맥락에서 절취되는 순간 맥락 속에서 가졌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 저자의 의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을 인용하

고 차용하는 방식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을 추적하고자 한 것은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기술·가정교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가족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교과서에 가족이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 1)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전개 양상은 어떠한가?
- 2) ‘변화하는 가족’에 나타난 가족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3) ‘변화하는 가족’에 나타난 가족의 형태와 가족생활의 다양화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4) ‘변화하는 가족’에 나타난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가치관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2007년 2월 고시된 2007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과 달리 교과 성격, 목표, 내용에서 기술 분야와 가정 분야로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 교육과정은 2004년 기초연구, 2005년 시안개발연구, 2006년 현장적합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은 이전의 교육과정과 매우 차별화된 절차이다. 즉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과정 적정화 구현을 위한 사전 검증 절차라는 점”(해설서, 208)에서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과의 학습내용을 청소년의 일상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교과에서 현장 적합성 검토는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교과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교과의 성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가정교과의 목표,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해설서, 22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목표를 제7차 교육과정 목표와 비교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가족생활에 대한 지식과 능력의 습득을 통한 ‘바람직한 가족생활 및 가족생활 문화의 창조’라는 생활역량의 강화에 두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가족’에 국한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 및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틀에서 개정되었기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역시 사회의 변화와 교사·학생·학부모의 요구 및 최근 학문적 동향을 반영하는 정도의 개정으로(해설서, 237), 이전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가족관계의 이해, 의사소통의 중요성, 결혼 등은 여전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7 개정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가 강조되어, 기존 교과서와 달리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해체 및 가족문제의 증가, 다양한 가족생활,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 등의 내용이 강조되었다.

둘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취지 및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족과 관련된 내용요소 면에서는 새로운 내용요소가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즉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갈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가정생활과 직업생활), 가족복지(생애단계별 가족복지, 지역사회의 가족복지 서비스), 이웃관계의 중요성(더불어 사는 이웃) 등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거나 혹은 간략하게 다룬 내용이 현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일면은 가정과 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가정생활을 개인, 가정, 사회와의 상호 관계에서 이해하도록 하며,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해설서, 219), 무엇보다 가족과 사회의 변화를 교과내용으로 적극 수용하여 실천교과로서의 가정

교과의 의의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의 강조'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해설서, 215).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육은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이며,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가 반영된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8학년의 '변화하는 가족' 단원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 및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교과의 성격을 다하고자 학습자의 '체험 중심 학습'과 '실천적 추론 학습'을 강조하였다. 즉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얻은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이 생활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되지 않도록", "가정생활과 관련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체험 중심 학습"이 이루어지고,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변화하는 가족'에서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례"의 적용으로 이어졌다(해설서, 236). 가정교과에서 실천적 측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가정교과의 학습내용을 청소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에 접목하여 사고하는 것은 가정교과의 실질적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다.

2007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변화는 기존의 개념 중심 교육과정에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이 더해진 것이다. 개념 중심 교육과정이 학습의 내용과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의 학습경험을 중시한다면,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은 인지적·정서적·기술적인 면의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강조한다(채정현 외, 2011). 청소년이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가족상을 정립하고 가족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통념에 기댄 가족에 대한 관습과 인습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 중심의 관점이 갖는 의의는 크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과장된 혹은 잘못된 신념을 고정관념이라 할 때,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현실의 가족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가족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가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타파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 교과서를 텍스트로 하여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다. 1989년 12월에 창간된 한국가정교육학회지는 2011년 9월에 발행된 23권 3호까지 총 61권이 발행되었고, 여기에는 621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기술·가정 교과서를 주된 분석텍스트로 한 연구를 찾은 결과 54편이 있었다. 이들 연구 중 2000년 이후의 선행연구 가운데 가족 분야가 포함된 연구를 이연숙(2010)의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역사적 관점의 연구로는 고상옥 외(2006), 김은경(2007), 윤인경(2004), 전미경(2004; 2005)이 있으며, 출판사별 교과서 비교 연구로는 김서현 외(2011), 김은정(2010), 손현희(2009), 최영선 외(2008), 최정혜(2002)가 있다. 또 교과내용의 국제비교 연구로는 박미정 외(2011)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관점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미정 외(2004), 김자영 외(2008), 김현희 외(2010), 변현진 외(2002), 윤인경 외(2005), 이경숙 외(2011), 이미영 외(2010), 이민정 외(2010), 이수희(2010), 이진희 외(2008), 장상옥 외(2011), 정옥분 외(2005), 조재순 외(2011)가 있다. 이 가운데 특정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은데, 가족에 대한 교과 내용화 영역을 'Bloom의 인지적 영역'과 연계한다거나(김현희 외, 2010; 이경숙 외, 2011), 비판적 사고(이미영 외, 2010)나 실천적 추론(이민정 외, 2010), 실천적 문제 중심(이진희 외, 2008) 등 교과교육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최정혜

1) 이연숙(2010)은 교과서 분석의 선행연구를, ①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서의 변화를 분석하는 역사적 관점의 분석, ②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 ③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과서를 비교 하는 방법, ④ 가정교과서와 타교과 교과서를 비교하는 방법, ⑤ 교과내용의 학교급별·학년별 연계성을 분석하는 관점, ⑥ 특정 관점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누었다.

(2002)는 제7차 가정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中)을 양적 분석하였고, 양정혜·김지경(2002)은 제7차 가정교과서 ‘나와 가족생활’ 단원(中)을 구조기능론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이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 김미정·유태명(2004)은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제7차 가정교과서(中)의 삽화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제4·5·6차 교육과정에 비해 등장인물의 성비구성이나 관계 면에서 양성불평등한 측면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옷차림, 성역할 등에서 여전히 이러한 측면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또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구성체제와 지도내용을 분석한 윤인경(2006)은 기술·가정 교과서가 출판사별로 시사성 및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다루면서 다양한 체제와 구성을 갖는 교과서 형태를 제시하였다. 김자영·조병은(2008)은 가족구조, 가족역할, 발달주기, 가족관계, 노후적응, 결혼과 출산의 6가지 분석 요소를 중심으로 가정 교과서(高1) ‘가족’ 관련 단원을 구조기능론, 발달론, 건강가정론 관점으로 비교하였다. 교과서에 ‘가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룬 연구로는 양정혜(2006)의 연구와 전미경 외(2007)의 연구가 있다. 초등 실과, 사회, 도덕 교과서(제7차)에 나타난 가족을 분석한 양정혜(2006)의 연구와 160종의 초등교과서를 분석한 전미경 외(2007) 연구는 공통적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이 지나치게 핵가족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그 밖의 학위 논문으로 김현민(2007)은 ‘가정생활’ 영역(高)을 외형적으로 분석하였고, 김민혜(2010)는 사회문화 교과와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단원을 비교하였다. 교과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이지영(2002)과 백정원(2011)은 실과와 가정교과서의 연계성을, 정수경(2004)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족생활 영역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또 전경선(1999)은 중학교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단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천을 추적했고, 김명자(2000)는 해방 후 중학교 교

과서의 변천을 외형적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같이 2000년 이후 ‘교과서’를 분석 텍스트로 삼은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가족’이 교과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2007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이해는 7학년 ‘나와 가족의 이해’ 대단원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이때의 내용요소는 가족 집단에 대한 이해보다는 가족관계 및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내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 다시 말해 ‘변화하는 가족’ 단원에서의 ‘가족’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내용과 분량 면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가족’에서 가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내용의 명시적·잠재적 측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변화하는 가족’ 단원에 초점을 두어 가족을 분석하는 경우 가족의 정의, 역할, 기능, 가치관 등 가족을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07 개정 교과서에서 ‘가족’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으며, 그것의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2007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해설서와 8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11종을 분석하였다.

〈표 1〉 분석 텍스트(8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 No | 출판사 | 저자 | No | 출판사 | 저자 |
|----|----------|-----------|----|-------|-----------|
| 1 | 교학사 | 윤인경 외 9인 | 7 | 삼화출판사 | 한정동 외 7인 |
| 2 | 교학사 | 정성봉 외 7인 | 8 | 원교재사 | 양정열 외 10인 |
| 3 | 금성출판사 | 권영출 외 9인 | 9 | 지학사 | 김종명 외 5명 |
| 4 | 두산동아 | 정철영 외 17인 | 10 | 천재교육 | 이승신 외 7인 |
| 5 | 미래엔 컬처그룹 | 이상혁 외 10인 | 11 | 천재교육 | 최유현 외 7인 |
| 6 | 삼양미디어 | 이병욱 외 9인 | | | |

* 이하에서는 교학사(윤인경 외)는 ‘교학(윤)’, 교학사(정성봉 외)는 ‘교학(정)’, 금성출판사는 ‘금성’, 두산동아는 ‘두산’, 미래엔 컬처그룹은 ‘미래’, 삼양미디어는 ‘삼양’, 삼화출판사는 ‘삼화’, 원교재사는 ‘원’, 지학사는 ‘지학’, 천재교육(이승신 외)는 ‘천재(이)’, 천재교육(최유현 외)는 ‘천재(최)’로 표기했다.

2. 자료 분석

이 연구는 내용분석과 빈도분석을 통해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 혼자 진행하였다. 먼저 내용분석은 기록된 의사소통 내용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고 말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데 특히 유용한 방법이다(고성호 외, 2007). 내용분석은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을 통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분석의 초점이 용어의 출현빈도나 분량과 같은 양적인 측면을 넘어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의 발견에 초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다. 질적 내용분석은 분석 자료의 명시적 내용의 분석과 잠재적 내용의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명시적 내용은 메시지의 표면적 구조 즉 메시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가시적인 내용을 말하는 반면, 잠재적 내용은 명시적 내용과 구분되는 것으로 메시지의 기저에 깔린 의미나 메시지에 의해 전달되는 심층적인 의미를 말한다(고성호 외, 2007).

이 연구에서는 잠재적 내용의 분석이 중요한데,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전달되는 가족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단어의 사용이나 문장의 내용과 같은 명시적 내용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메시지들은 상호작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에,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대한 분석 외에도 선정된 주제 등의 결합, 단어 사용의 혼동, 문장 의미의 불명료성, 메시지 내에서의 충돌 등과 같은 현상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박윤경, 2005). 따라서 여기에서는 출판사별 변화하는 가족 단원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명시적 내용을 내용요소(가족이란?, 가족 기능, 가족 구조, 다양한 가족 형태, 가족 역할, 가족 가치관, 바람직한 가족, 가족 문화, 저출산·고령사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가족'에 대한 메시지에 함축된 내용, 암묵적인 전제, 내용이 전달되었을 때의 효과 등의 잠재적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한편 빈도분석의 경우는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외형적 측면의 분석을 위해 11종 교과서의 내용요소, 활동 및 참고자료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활동자료는 해보기 및 토론·탐구 등의 자료를, 참고자료는 읽기자료, 보충자료 등을 말한다.

3. 연구절차

이 연구는 다음의 연구절차를 밟았다. 첫째,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분석할 단원의 범위 즉 본 연구가 주목하는 내용분석의 전집(모집단)을 선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가정 교과서의 내용과 체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가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분석 후 이 연구의 초점이 되는 분석 단원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선정하였다. 이 단원의 내용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 형태, 가치관,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양성평등한 가족 가치관을 형성한다”이며(해설서, 235), 이것이 교과서 전개의 기준이 되어 교과서 내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대부분은 가족의 정의, 의미, 형태, 기능 등 가족에 관한 기술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분석은 외형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적 분석은 교과서별 하위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1종 교과서는 소단원 이하 전개방식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가족의 정의와 의미, 가족의 형태와 가족생활의 다양화, 가족의 기능, 가족의 가치관, 역할의 변화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는 교과서 내 하위 제목으로 명시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주의 타당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넷째, '변화하는 가족'에 설명된 '가족'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술의 명시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전개 양상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소단원은 교과서에 따라 2~3개의 하위 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살펴보기 전, 11종 교과서의 외형적 측면을 전체면수·활동·참고자료의 빈도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1종 교과서의 전체 면수의 경우 금성과 원이 271면으로 가장 많은 반면 미

〈표 2〉 출판사별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전체면수·활동·참고자료

| 범주 | 교학(정) | 교학(윤) | 금성 | 두산 | 미래 | 삼양 | 삼화 | 원 | 지학 | 천재(최) | 천재(이) |
|--------|----------|----------|----------|----------|----------|----------|----------|----------|----------|----------|----------|
| 전체면수 | 265 | 255 | 271 | 264 | 248 | 248 | 248 | 271 | 255 | 255 | 255 |
| 면수 (%) | 14 (5.3) | 12 (4.7) | 16 (5.9) | 14 (5.3) | 14 (5.6) | 12 (4.8) | 16 (6.5) | 12 (4.4) | 10 (3.9) | 14 (5.5) | 14 (5.5) |
| 활동 | 7 | 5 | 8 | 4 | 8 | 4 | 11 | 4 | 4 | 8 | 5 |
| 참고자료 | 1 | 1 | 1 | 3 | 1 | 2 | 2 | 1 | 0 | 2 | 3 |

래, 삼양, 삼화는 248면으로 그 차는 23면이었다. ‘변화하는 가족’ 중단원은 최대 16면에서 최소 12면까지 구성되었는데 전체 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에서 3.9%로 교과서별 차이가 컸다. 도입부분의 활동까지 포함된 이 단원의 활동은 4~11개였고, 참고자료는 0~3개가 있었다(〈표 2〉 참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족의 의미, 가족 형태, 가족 가치관, 가족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회변화에 따른 이들의 변화가 설명되었기에, 개정된 교과서에는 이러한 범주에 맞추어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내용요소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내용요소란 단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소재나 제재를 의미하므로, 교과서별 하위 제목과 소영역을 참조해 추출하였다(〈표 3〉 참조).

11종 교과서의 ‘변화하는 가족’ 단원은 단원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족이란?(가족의 정의, 가족의 의미와 특

성), 가족 기능, 가족 구조(형태), 다양한 가족 형태, 가족 역할, 가족 가치관, 바람직한 가족(건강가정, 양성평등 가치관, 세대 간 협력), 가족문화, 저출산·고령사회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범주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가족이란?’의 내용요소는 ‘가족의 정의’와 ‘가족의 의미와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의 정의’란, “결혼이나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집단”(교학(정), 11)과 같이 가족을 정의 내린 경우를 말한다. 또 ‘가족의 의미와 특성’은 개인과 사회에서 가족이 가진 의미와 가족 집단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데, “가족이란”이라고 하면 서도 가족에 대한 정의가 아닌 가족의 의미와 특성을 기술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해 분석하였다. ‘가족의 구조’는 “가족 규모의 축소 및 세대 구성의 단순화”(지학, 12)와 같이 가족의 구조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를 말한다. ‘바람직

〈표 3〉 출판사별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전개 양상

| No | 출판사 | 소단원 | No | 출판사 | 소단원 |
|----|-------|------------------------|----|-------|---------------------|
| 1 | 교학(정) | 가족의 의미와 기능 | 6 | 삼양 |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 |
| | | 가족의 변화 | | | 변화하는 가족의 이해 |
| | | 건강한 가족 | | |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
| 2 | 교학(윤) | 가족의 의미와 가치관의 변화 | 7 | 삼화 | 가족의 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 | | 가족 형태의 변화 | | | 행복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은 |
| | |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 | | | 가족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
| 3 | 금성 | 가족이란 무엇인가? | 8 | 원 | 가족 가치관의 변화 |
| | | 우리 가족의 유형은? | | | 다양한 가족, 더불어 사는 사회 |
| | | 우리의 가족 가치관은? | | | 가족에 대한 이해 |
| 4 | 두산 | 가족이란 무엇인가 | 9 | 지학 | 바람직한 가족 |
| | | 가족의 변화 | | | 우리에게 가족은 왜 중요할까 |
| | |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와 바람직한 가족생활 | | | 가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 5 | 미래 |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어떠한가 | 10 | 천재(최) | 건강한 가족생활이란 |
| | | 가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 | 가족의 변화 |
| | | | | | 건강한 가족 |

한 가족'은 '건강가정', '양성평등 가치관', '세대 간 협력'으로 세분화해 분석하였다. '건강가정'은 바람직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건강가정지원법에서 정의한 건강가정의 내용을 말한다. 또 건강한 가정의 주된 특징은 양성평등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가족생활이기에, 이에 관한 내용은 전 출판사의 가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내용요소로서의 '양성평등가치관'은 교과서 내 소제목이나 본문 등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학생들이 양성평등 개념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된 경우를 말한다. 가족 가치관을 양성평등에 치중하여 기술한 경우도 '양성평등가치관' 범주로 간주하였고, '가족 가치관' 내용요소와 중복하여 산출하지 않았다. 가족문화란 "함께 살면서 그 가족만이 가지는 생활습관이나 행동 유형을 말한다"(삼화, 24)와 같이 가족문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동 등을 전개한 경우를 말한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11종 교과서에서 내용요소는 출판사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가족의 의미 및 특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는 11종 교과서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내용요소이며, 가족 기능, 가족 역할, 가족 가치관의 이해 역시 한 두 출판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다. 반면 세대 간 협력, 가족문화와 관련된 내용요소는 일부 출판사에서만 발견되었다.

한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을 강조함으로써 11개

출판사에서 학습내용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였다. '변화하는 가족'이 속해 있는 대단원 '가족의 이해'에서 소개된 직업을 살펴보면, 가족치료사(6회), 요양보호사(3회), 건강가정사(2회)가 두 출판사 이상에서 중복 소개되었고, 그 밖에 라이프코치, 사회복지사, 베이비시터, 청소년지도사, 언어치료사,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있었다.

2. 가족의 정의와 의미

가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일, 즉 가족을 정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영주 외(2004:14~16)는 20세기 국내외 다양한 가족학자들이 내린 가족의 정의를 열거한 후, 가족에 대한 정의를 '고전적 정의'와 '현대적 정의'로 구별하였다. 가족에 대한 고전적 정의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제도체로 보고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동거동재의 공동체로 가족의 개념을 규정"하는 반면 현대적 정의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실체"라기 보다는 "구성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가정 교과서에서도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가족 집단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은 결혼이나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집단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며, 가장 오래된

<표 4> 출판사별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내용요소

| 내용요소 | | 교학 (정) | 교학 (윤) | 금성 | 두산 | 미래 | 삼양 | 삼화 | 원 | 지학 | 천재 (최) | 천재 (이) |
|-----------|----------|--------|--------|----|----|----|----|----|---|----|--------|--------|
| 가족 이란? | 가족 정의 | ● | | ● | | | | ● | ● | | | ● |
| | 가족 의미·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 구조(형태) | | ● | ● | ● | ● | ● | | ● | | ● | | ● |
| 다양한 가족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 가치관 | | ● | ● | ● | ● | | ● | ● | ● | ● | | ● |
| 바람직한 가족 | 건강가정 | ● | | ○* | | ○* | | ● | | ● | ● | ● |
| | 양성평등 가치관 | | ● | | ● | ● | ● | ● | ● | ● | ● | |
| | 세대 간 협력 | | | ● | ● | | ● | | | | | |
| 가족 문화 | | | | | | | ● | ● | | | ○* | |
| 저출산·고령사회 | | ● | ● | ● | | ● | | ● | ● | | ● | ● |

* '가족관계' 단원에 수록된 경우는 ○ 표시했음.

고 기초적인 사회 제도이다.(교학(정), 11)

가족은 ... 혈연을 기본으로 하는 친밀한 집단이다. 또한 사회 유지의 수단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미래, 10)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이들은 이해관계를 넘어선 애정중심의 혈연집단이다. 또한 가족은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생활을 통하여 ... 가족문화 또는 가풍을 형성하는 문화집단이다. (삼화, 11)

11종의 가정 교과서에서 설명한 가족은 크게 10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으나(<표 5> 참조), 대체로 혈연, 결혼, 입양으로 이루어진 집단, 인간이 접하는 가장 최초의 집단, 사회의 기본단위, 애정적 집단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의 정의와 의미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강조하였다. 즉 오늘날의 가족은 ‘혼인이나 혈연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 벗어나, 가족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천재(최), 13), “협조적인 생활공동체”(천재(이), 11)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교과서별 특징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 교과서에서는 가족을 ‘사회의 기본집단’, ‘혈연, 결혼, 입양으로 이루어진 집단’, ‘애정 집단’, ‘동거 집

단’ 등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학(정)은 가족을 결혼이나 혈연관계로 정의내릴 경우 오늘날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족 개념은 “혈연 공동체에서 정서 공동체”로 바뀌고 있다고 하면서(15), 가족을 ‘생활공동체’, ‘생활단위’라 하여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의 측면을 강조하였다(11). 또 “다양한 나이와 세대로 구성”된 가족은 가족원간의 “욕구가 다르므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19)다고 하면서 가족의 특징을 가족의 대외적 기능이 아닌 가족의 내부자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두산(9)은, 가족은 친밀한 관계와 가족지위에 맞는 역할이 ‘기대’되는 집단이라고 하면서, 가족 과정에 따라 가족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가족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개정된 가정 교과서에서는 가족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명시적 내용과 함께, 11종의 교과서 대부분은 가족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개인에게 ‘가족은 매우 소중한하다’는 측면을 명시적·잠재적으로 강조하였다.

가족은 ... 가족구성원을 보호해 주는 진정한 울타리이며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미래, 13)

<표 5> 가족의 정의 및 가족 집단의 특징

| 특징 | 출처 |
|---------------------------------------|---|
| 혈연, 결혼, 입양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 교학(정), 11; 금성, 11; 두산, 9; 삼양, 11; 삼화, 11; 원, 11; 지학, 13 |
| 사람이 가장 먼저 접하는 집단이다. 태어나면서 소속되는 집단이다. | 교학(정), 9; 두산, 9; 미래, 10; 삼양, 8; 삼화, 11; 최(이), 11; 천재(최), 13 |
| 동거집단이다 | 교학(정), 11; 미래, 12; 삼양, 11; 삼화, 11; 원, 11; 지학, 13 |
| 애정 집단이다. 정서적 집단이다. 친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집단이다. | 교학(윤), 11; 두산, 9; 미래, 14; 삼양, 11; 삼화, 11; 지학, 11; 원, 11; 천재(이), 11 |
| 고유한 생활습관 및 행동유형을 가진 문화집단이다 | 교학(정), 11; 삼화, 11; 미래, 13; 지학, 11 |
| 이성에 집단이다 | 교학(정), 4; 미래, 13; 삼양, 11 |
| 성별과 세대가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 교학(정), 19; 천재(이), 14 |
| 협동적인 생활공동체이다. | 교학(정), 11; 천재(이), 11 |
| 사회의(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 단위(집단)이다. | 교학(윤), 11; 교학(정), 11; 금성, 12; 두산, 9; 삼양, 12; 지학, 12; 천재(이), 34; 천재(최), 13 |
|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집단이다 | 교학(정), 11; 두산, 9; 삼화, 13; 지학, 1 |

* 숫자는 해당 출판사 쪽수를 말한다.

가족이 없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할 만큼 가족은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환경이며 ... (천재(최), 11)

가족이 없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할 만큼 개인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교학(윤), 11)

이상의 예를 비롯하여 그 밖의 가정 교과서에서는 가족을 “행복의 근원지”(삼양, 11), “부모를 중심으로 한 행복 공동체”(금성, 10), 아프고 힘들 때는 “가족이 최고”(교학(정), 10), “서로 대가 없는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지학, 11)라고 하거나, 가족관계를 “조건 없는 애정을 바탕으로”(삼화, 28)으로 한 “운명으로 맺어져 평생 지속되는 관계”(원, 34) 등으로 설명하였다.

‘가족’을 묘사하는 용어는 가족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표상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줄 뿐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 내고 행동의 과정을 동기화 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볼 때(Jaber F. Gubrium 외, 1997:139~149), 이상의 가족에 대한 설명은 가족현상에 관한 지나친 낭만적 기술이다.

건강한 가족에서 가족구성원은 애정과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가족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는 종적으로 세대(generation), 횡적으로 성(sex, gender)이라는 개념에 의해 짜였고 이들의 관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성, 세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원의 가족경험은 매우 상이하다. 가족은 의사소통, 갈등, 권력, 친밀감, 규칙의 상호적인 가족과정의 결과 건강한 가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심각한 가족폭력이 야기되기도 한다(정현숙 외, 2001:91~113). 더구나 “가족은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나친 낭만적 기술은 가족의 내부적 역동과 개별 가족의 특징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제1차 교육과정 이후 반세기 이상의 가정교과의 역사 속에서 교과의 성격은 기술 이론적 성격에서 실천 비판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천적 추론 능력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주도적인 실천과 가치관을 길러주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이 일부 도입되

는 변화가 있었다(채정현 외, 2011:12). 그러나 교육과정상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개인적 경험에서 가족의 의미를 찾는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활동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가족의 의미와 관련된 활동은 출판사별 차이가 있으나 금성과 원을 제외하고 1개 이상의 활동이 전개되었다.²⁾

수나는 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전화 한 통화를 가족에게 했을까? (천재(최), 12)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나 ‘가족’하면 떠오르는 말을 생각하면서 빈칸을 완성해 보자. (교학(정), 12)

‘가족’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을 써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미래, 13)

가정이란 _____ 이다. 가족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삼양, 11)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천재(최), 12)라든가, “가족이 없다면 우리사회는”, “가족이 없다면 우리나라는”을 주제로 한 빈칸 채우기 활동(교학(정), 12)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족 경험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매우 극단적인 질문이다. 그 밖에도 “소중한 가족”(삼화, 12), 나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천재(이), 10), “나에게 가족이란”(두산, 9), 가족의 의미를 묻는 공익광고(교학(윤), 11)에서는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교학(정), 10)나 “아빠 저는 무엇을 도울까요”(삼양, 10)와 같이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가족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관점을 읽기 어렵다. 특히 가족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고 가족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전제하는 경우 “가족이 없다면”이라는 질문은 더욱 무리한 것이다. 물론 이상의 활동은 가족의 의미에 대한 생각열기의 정도의 간단한 활동에 불과한 것도 있으며, 또 수업시간 교사의 질문을 통해 청소년 각자가 자신의 가족과정을 추적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전개과정이 정교하지 않으면 가족과정이 간과하여 ‘가족은 사랑이다’, 혹은 ‘가족은 울타리이다’ 등과 같은 가족 신화를 강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2) 출판사별 활동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교학(정) 2개, 교학(윤) 3개, 금성 0개, 두산 1개, 미래 1개, 삼양 2개, 삼화 2개, 원 0개, 지학 1개, 천재(이) 1개, 천재(최) 1개.

쉽다. 개념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경험하는가’의 학습 경험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과정이 개념 중심 교육과정에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면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아닌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3. 가족의 형태와 가족생활의 다양화

가족의 형태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 결혼형태, 가족 내의 권위 소재, 거주 방식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금성, 16).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 및 가족생활의 변화를 설명하도록 하였고, 여기에 맞추어 가정 교과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로 가족 규모의 축소, 세대구성의 단순화, 시기별 가족 형태의 추이 등을 설명하였다.

‘가족’과 관련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의 하나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강조이다. 즉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는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다원화된 가족 형태 속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해설서, 236). 이에 분석한 모든 가정 교과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설명에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련된 학습목표를 살펴보면, 이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측면으로 나뉜다. 먼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이해 측면을 보면, 11종 출판사 가운데 핵가족, 확대가족, 직계가족, 방계가족이 각각 10종, 9종, 4종, 1종의 교과서에서 소개되었다. 그 밖에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언급된 독신가족(11종), 한부모가족(11종), 재혼가족(11종), 다문화가정(11종)과 함께, 무자녀가족(8종), 입양가족(8종), 조부모-손자녀가족(5종), 분거가족(비동거가족, 신이산가족)(4종), 노인가족(3종), 공동체가족(4종), 수정핵대가족(2종), 수정핵가족(2종)이 소개되었다. 그 밖에 이혼가족,

기러기가족, 비혈연가족, 소년소녀가족, 위성가족이 1종의 교과서에서 소개되었다.³⁾

그러나 이상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설명은 가족 형태의 정의 면에서 오류가 있거나 교과서 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우선 독신가족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신(獨身)’의 사전적 정의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뜻하지만 독신가족은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말한다.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비동거 상태에서 혼자 산다면 엄밀히 말해 1인 가구이다. 그러나 가정 교과서에서 말하는 독신가족은 비동거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혼(非婚), 이혼, 배우자 사망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1인 단독가구’를 말한다. 11종 교과서 모두는 독신가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가족의 유형은 ‘독신가족’(교학(윤), 교학(정), 금성, 미래, 삼양, 삼화, 원, 천재(최)), ‘독신’(두산, 지학), ‘1인 가족(천재(이))’으로 소개 되었다. 또 7종의 교과서에서 이 가족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 이때 ‘배우자 없음’과 ‘혼자 사는’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포함(교학(윤), 금성, 두산, 삼양, 지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배우자가 없는 경우처럼 ‘배우자 없음’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삼화, 미래)가 있었다. 또 금성(17)은 “성인이 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이혼이나 사별 이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년 이전의 가족”처럼 노인 가족을 제외시켜 설명하였다.

독신가족: 법적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경우 (교학(윤), 14)

독신가족이란 ...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삼화, 17)

특히 몇몇 교과서는 독신가족을 비혼가족에 국한해 설명하면서도 독신가족의 증가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1인 가구 통계치를 제시하였다(금성, 17; 삼화, 17). 오늘날 우리사회의 1인 가구의 증가는 비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교육과 직업 등의 이유로 인한 비동거 가족, 노인단독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독신가족의 정의에 교과서 간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1인 가족(가구)과 초혼이든 재혼이든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생활양식인 독신의 구분이 필요하다.

3) 문장 중에 언급된 것까지 포함하여 빈도를 산출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족' 역시 11종 전체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독신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정의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독신가족이나 1인가구와 달리 다문화가족을 정의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란 한국인들 간의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통칭하지만, 사회적, 제도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 집단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다문화가족을 정의내리는 것은 혼란스럽고도 모호한 일이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2006년의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이란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는 공식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김이선 외, 2009).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가족(또는 결혼이민자가족)으로 좁혀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가정 교과서에서 명시된 다문화가족의 대표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은 부부나 가족 중의 일부 또는 모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 또는 귀화하거나 가족을 입적하여 형성된 가족이다. (교학(정), 16)

다문화가족: 국제 인구 이동과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 (천재(최), 16)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국적이 다른 남녀의 결혼을 강조한 경우(금성, 18; 지학, 13)와 가족 내 둘 이상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강조한 경우(교학(윤), 14; 두산, 10; 미래, 17; 삼화, 18; 천재(최), 16)로 대별되지만,⁴⁾ 가족의 내부적 역동을 강조하는 가정 교과서는 후자의 관점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가족 형태에 대한 가정 교과서의 설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부모가족은 대개 사망, 별거, 이혼의 결과로 소개하였지만, “법률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자녀를 낳아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교학(윤), 14)와 같이 미혼모 가족(원, 18; 천재(최), 16)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설명은 이들 가족이 겪는 어려움 및 사회적 지원의 필

요성과 사회적 편견의 부당함에 치중되어 있었다. 무자녀 가족은 자녀가 없는 가족이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childless)'과 '자녀를 갖지 않는(child-free)'에 따라 비자발적 무자녀와 자발적 무자녀로 구분된다. 따라서 무자녀 가족을 “생식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만 사는 가족”으로 정의하면(금성, 18) 자발적 무자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밖에 분거가족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사는 비동거 가족을 말하며 애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부부가 별거하는 별거가족과는 다른 개념이다(유영주 외, 2004;449). 분거가족은 비동거 가족, 신이산 가족(천재(이), 14) 등의 용어로 4종의 출판사에서 소개되었다. 삼화(16)는 공동체가족을 “혈연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족”이라 하면서, 두 여성가구주 가족이 함께 사는 가족을 소개하였다. 또 교학(윤)은 11종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결혼이나 가족제도에 편입하지 않은 채 가족생활을 하는 경우”(13)라 하면서 동거가족(사실혼가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족 형태 및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은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달리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는 다양한 가족 형태 및 가족생활을 적극 소개하는 강점이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2007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 및 가족생활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내용과 달리 교과 내용의 전개 등에서 핵가족이나 확대가족 외의 가족을 구조와 기능면에서 매우 취약한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11종 교과서 중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독신가족 등의 가족 형태를 정의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 형태별 특징을 설명한 경우는 6종(교학(정), 금성, 미래, 삼양, 삼화, 원)이 있었는데, 미래를 제외하고는 이들 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 과중한 역할부담, 자녀양육 문제, 정서적 불안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양육 보호 시설이나 친척, 이웃 등에서 도움을 받거나 지원이 가능한 사회기관과 적절한 유대관계를 맺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삼

4) 교학(정)(14), 미래(17), 삼양(17), 삼화(18)는 다문화가족에 국제결혼가족(결혼이민자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새터민 가족, 혼혈인 가족, 유학생가족이 속한다고 하였다.

화, 17),

재혼가족(은) ... 가족구조와 형태가 많은 변화를 겪은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인 가족구성원과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교학(정), 16)

다문화가족의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불편함과 문화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단절 및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다. (삼양, 17)

독신가족은 외로움과 경제적인 곤란,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등을 겪을 수 있다. (원, 18)

이상의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독신가족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실 앞서의 기술은 이들 가족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며, 이것은 이들 가족이 가진 구조적, 기능적,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 형태 단원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있다면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효율적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족 형태와 가족생활의 다양화에 대한 학습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것이 우리 사회의 역기능적 현상이 아닌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임을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 단원에서 소개된 핵가족, 확대가족(직계·방계가족) 이외의 가족은 초혼, 양부모, 자녀, 동거, 동일 문화권 내 결혼, 2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은 가족의 특징을 ‘어려움’과 ‘지원방안’의 필요성 중심으로 기술하면 이들 가족을 ‘결핍’된 가족으로 명명하여 이들 가족의 출현을 가족의 위기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가족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족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자신이 구성한 행동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태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이를 위한 전략을 세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도록 했다(해설서, 236). 이에 적지 않은 교과서에서 한부모가족(교학(은), 20; 천재(최), 25), 재혼가족(삼양, 17; 삼화, 16, 38), 다문화가족(금성, 16; 삼양, 18; 원, 20)

등의 가족 사례를 제시하였다.

... 순간 친자식과 입양 자식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책감도 많이 들었다. (금성, 18, ‘토론해 보기’ 읽기 자료 중에서)

... 무엇보다 생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삼양, 17, ‘재혼가족 계모의 입장’ 중에서)

기러기 아빠 또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보자 (삼화, 22, ‘생각 나누기, 기러기 아빠들 화병 ... 사실상 별거 ... 가족 해체 우려’ 중에서)

이상의 사례는 입양가족, 재혼가족, 기러기 가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통해 이들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개별 가족의 형태적 특성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특성이 드러나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구조 그 자체만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사례를 제시하는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 보다는 오히려 이들 가족이 갖는 강점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천재(최), 24), 이들 가족의 특성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차이에 주목하는(교학(정), 16; 두산, 10) 등의, 보다 정교한 전개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문화가족을 통해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두산, 14)와 같이 개별가족이 가진 강점과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정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구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양한 사례를 적용하여 다원화된 가족 형태 속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해설서, 236). 즉 다양한 가족사례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이해보다는 건강한 가족생활의 전략의 수립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실천적 문제 중심이라는 교육과정의 관점이 달성 가능하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전략은 가족의 형태 및 가족생활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교과서에서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형태별 가족의 특성 및 어려움을 설명하는데 급급

하여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가족구조에 기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내용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 오늘날의 핵가족은 형태면에서 핵가족이라 할지라도, 생계부양자의 수에 따라 '맞벌이 가족', '남편 생계부양자 가족', '아내 생계부양자 가족', '남편과 아내가 실업상태인 부부'로 나눌 수 있다. 가족의 내부적 역동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가족구조가 설명할 수 있는 가족의 역동은 한계가 있다. 가족은 가족마다 다른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정교과는 가족생활의 성공을 위해 개별가족이 가진 가족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4.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가치관의 변화

가족의 기능이란 가족이 개인과 사회를 향해 수행하는 역할을 말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가정 교과서에서도 가족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가정 교과서 내 가족기능에 대한 설명은 출판사별 대동소이한 전개를 보인다(<표 6> 참조).

가정 교과서 내 가족의 기능은 성, 자녀 출산, 자녀의 양육·교육·사회화, 경제(생산과 소비), 애정, 정서, 보호, 휴식·여가·오락, 문화·전통 계승의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또 기능의 일부가 사회화됨에 따라 자녀양육 및 정서·휴식·오락·여

가의 기능이 더욱 중시된다고 하였다.

가족 기능과 관련하여 개별 교과서의 특징적 일면을 살펴 보면, 지학(11)은 보호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가족은 “노약자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갖는다”고 하였고, 삼양(12)은 애정의 기능에서 부부간 애정을 강조하였다. 또 금성(14), 삼화(14), 원(12)은 자녀출산의 기능을 가족의 고유기능으로 설명하면서, 가족은 “자녀를 출산하여 사회를 유지·발전시킨다”(금, 14)고 했으며, 삼양(12)은 가족은 “자녀의 출산으로 가계를 계승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출산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가족 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가족’은 개인과 사회에 다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가족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집단이며, 개인은 가족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며 성장·발전한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은 변화했으나, 가족은 여전히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셋째,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족이 개인과 사회에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가족 가치관이란 가족 혹은 가족생활에 대하여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식을 말한다(유영주 외, 2004:72). 가정 교과서는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어 가족 가치관 전반을 소개하거나 결혼·부부·자녀가치관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 내 역할변화를 가져오기에 역할변화와 함께 설명되는 경우도 많

〈표 6〉 출판사별 가족의 기능

| 출판사 | 가족의 기능 |
|-------|---|
| 교학(운) | 정서적 안정·휴식 기능의 강화 |
| 교학(정) | 애정, 양육, 보호, 휴식 및 여가, 교육의 기능 |
| 금성 | 자녀출산, 보호와 애정, 자녀양육과 사회화, 경제적 기능 |
| 두산 | 애정, 자녀출산과 양육, 보호, 경제적, 정서적 안정, 오락과 여가, 자녀교육 및 사회화의 기능 |
| 삼양 | 애정, 경제적, 출산, 돌봄, 친밀감 형성 및 여가, 교육 및 사회화의 기능 |
| 삼화 | 자녀출산 및 성, 애정, 자녀의 사회화, 정서적, 경제적 기능 |
| 원 | 자녀출산 및 양육, 생산과 소비, 사회화 및 교육, 보호와 휴식, 오락의 기능 |
| 지학 | 애정, 자녀출산과 사회화, 보호, 휴식, 경제적 기능, |
| 천재(이) | 애정 및 성, 자녀출산 및 양육, 휴식 및 정서적 안정, 문화·전통 계승, 경제적 기능 |
| 천재(최) | 성, 자녀출산·양육, 사회화, 교육, 종교, 보호, 생산·소비, 애정, 정서적 안정·휴식, 오락의 기능 |

* 미래(14)의 경우 가족의 특성으로 성과 혈연, 애정, 경제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가족 기능을 대신했다.

〈표 7〉 출판사별 가족 가치관

| 가족 가치관 | 출처 |
|--------------------------|---|
| 가부장제의 약화 및 민주적인 가족관계의 강화 | 교학(윤), 18; 교학(정), 13; 금성, 20; 원, 16; 삼화, 14; 지학, 15; 천재(이), 12; 천재(최), 20 |
| 개인주의의 강화 | 교학(윤), 12; 두산, 14; 금성, 20; 지학, 15; 천재(이), 12; 천재(최), 20 |
| 성별이분화의 약화 및 양성평등가치관의 강화 | 교학(정), 13; 금성, 20; 두산, 16; 미래, 20; 삼양, 15; 삼화, 23; 원, 16; 지학, 15; 천재(이) 15; 천재(최), 20 |
| 부모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의 중시 | 교학(윤), 17; 지학, 15; 천재(최), 20 |

* 숫자는 해당 출판사 쪽수를 말한다.

았다. 가정 교과서에서 강조되는 대표적인 가족 가치관은 “가부장 중심의 가치관이 점차 약화”(삼화, 14),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교학(윤), 12), “최근에는 양성평등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미래, 20), “부모자녀관계 중심에서 부부관계 중심으로 변화”(천재(최), 20)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출판사별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가족이 개인과 사회에 제 기능을 다하고, 가족구성원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때 가족원은 긍정적인 가족 현상을 경험할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가족’ 단원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양성평등한 가족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역할공유와 세대 간 협동방안”을 모색·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였다(해설서, 236). 따라서 11종 교과서 중 원교재서를 제외한 전 교과서는 바람직한 가족이나 건강한 가족, 혹은 양성평등이나 역할 공유 등을 특징으로 한 가족생활을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가

족’ 단원을 마무리 하였다. 다시 말해 건강가정과 같은 바람직한 가족상의 제시와 이를 도달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과 실천으로 구성되었다.

성공적인 가족생활은 ‘건강한 가정’이란 용어로 축약할 수 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한 ‘건강가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제7차 교육과정의 가정 교과서(중1)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다. 11종 교과서 중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 ‘건강가정’을 설명한 경우는 7종(<표 4> 참조)이지만 ‘건강한 가정(가족)’, ‘건강가정’의 정의는 교과서마다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지학(17)은 건강한 가정을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뜻한다고 하면서 가족의 대내적 기능의 성취를 강조였다. 천재(최)(21)는 건강한 가족생활의 특징의 하나로 ‘사회와의 유대’ 즉 가족과 사회의 관련성을 강조하였으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자원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천재(이)(16)와 교학(정)(19)은 건강한

〈표 8〉 출판사별 ‘건강한 가정(가족)’, ‘건강가정’의 특징

| ‘건강한 가정(가족)’, ‘건강가정’의 특징 | 교학(정) | 금성 | 미래 | 삼화 | 지학 | 천재(최) | 천재(이) |
|---------------------------------|-------|----|----|----|----|-------|-------|
| 가족원 간 신뢰와 존중 | ● | ● | ● | ● | ● | ● | ● |
| 가족원 간 건강한 유대감(애정, 배려) | ● | ● | ● | ● | ● | ● | ● |
| 경제적 안정 | | | | | ● | | |
| 즐거운 가족경험(가족원간 공유시간, 상호작용) | ● | ● | ● | ● | | ● | ● |
| 갈등해결 및 위기관리 능력(바람직한 가족규칙) | ● | ● | ● | | ● | ● | ● |
| 건강한 의사소통 | ● | ● | ● | ● | | ● | ● |
| 가사노동 등에서의 가족원 간 책임과 공유(세대 간 협력) | ● | | ● | | ● | ● | ● |
|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치관 | ● | | ● | | | ● | ● |
| 건강한 시민의식(사회와의 유대) | | | | | | ● | ● |

가족이 가족위기에 강하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건강가정 정의나 강조점에서 교과서 간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건강가정은 가족 간 신뢰, 존중, 유대감, 책임과 공유, 즐거운 가족경험, 갈등해결 및 위기관리 능력, 건강한 의사소통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출판사별 건강한 가정(가족), '건강가정'의 특징은 <표 8>과 같다.

또 건강한 가정 또는 바람직한 가정을 달성하는 방법은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가치관의 실현과 연계되어 가사노동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강조되었다. 즉 가족 내 역할은 성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특징과 이들이 처한 조건에 맞추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이 교과서에서는 활동으로 전개되어, 가족 내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가족역할을 찾아보는 활동이 다수 전개되었다(교학(정), 21; 두산, 17; 미래, 20; 삼화, 23; 원, 17; 지학, 19; 천재(좌), 23; 천재(이), 15).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가치관에 대해 살펴보자. 11종 교과서 중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8종으로(<표 4> 참조), '양성평등'이란 제목으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경우(교학(운), 미래, 두산, 삼화, 원)를 포함해 이들 교과서는 가정 내의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면 미래는 우리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정도에도 주목하였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함께하는 것”이고(미래, 20), 양성평등한 가정이란 “가정 내에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없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이익과 역할을 공유하는 가정”을 뜻한다(교학(운), 17). 그러므로 양성평등 가치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자=일, 여자=가정'이라는 이분화된 성역할의 틀을 타파하는데 있다. 이것은 가정의 여성화, 즉 노인 부양과 자녀 양육의 돌봄노동, 자녀 교육, 가사노동의 1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여성=어머니', '여성=주부'가 아님을 의미한다. 가족 내 양성평등가치관의 구현은 이러한 고정관념의 그릇됨을 자각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이나 역할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 참여 보다 상위의 개념인 '가족의 여성화', '돌봄노동의 여성화'라는 성역할의 탈피를 위

해 노력해야 한다.

V. 요약 및 제언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인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과서가 가진 규범성, 표준성, 제도성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교과서가 현실을 규제하는 힘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기대어 지금까지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는 상당하며, '가족'에 관한 연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과서 내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가족' 분야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가족의 변화를 사회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가족복지 및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등이 강조되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요소가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교육과정에서 발견되는 내용요소라 할지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기술되기를 요청하였다. 즉 7학년부 10학년의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에서는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행동할 것을 결정하는 고등사고과정인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해설서, 258).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 이 연구는 2007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의한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전개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변화하는 가족'의 가족 정의와 의미에 대한 내용과 그 함의, 셋째 '변화하는 가족'에 나타난 가족의 형태와 가족생활의 다양화에 대한 내용과 그 함의, 넷째 '변화하는 가족'의 가족 기능, 가치관, 역할에 대한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 빈도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분석 텍스트가 가치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명시적 내용 뿐 아니라 메시지의 기저에 깔린 잠재적 내용을 추적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언

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하는 가족’ 단원은 2~3개의 하위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종 교과서의 외형적 측면은 교과서의 전체 면수, 전체 면수에서 변화하는 가족 단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수, 활동과 참고자료의 수 등에서 교과서별 차이가 컸다. 또 ‘변화하는 가족’ 단원은 출판사별 차이가 있으나 대개 가족의 의미와 특성, 가족의 기능, 다양한 가족 형태, 가족 역할 및 가치관, 바람직한 가족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11종의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가족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기술은 교과서별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가족을 ‘사회의 기본집단’, ‘혈연, 결혼, 입양으로 이루어진 집단’, ‘애정 집단’, ‘동거 집단’ 등으로 묘사되었다.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정의와 의미는 달라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가족을 개인의 ‘매우 소중한 집단’으로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낭만적 묘사가 많았다. 가족현상에 대한 낭만적 기술은 자칫 가족에 대한 통념이나 신화를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효과를 낳을 뿐 아니라 가족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주도적인 실천과 가치관을 강조하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경험을 추적하는 교과서 내 활동은 청소년이 가족생활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묻기 보다는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 특히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에 주목하였다. 이에 11종의 가정교과서 전부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설명에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독신, 한부모, 재혼, 다문화, 무자녀, 입양가족을 설명하였으며, 그 외에 조부모-손자녀, 분거, 노인, 공동체 등의 가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설명에는 교과서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차가 있었고, 핵가족이나 확대가족 이외의 가족을 구조와 기능면에서 매우 취약한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설명은 개별 가족의 형태적 특성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특성이 드러나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구조 그 자체만이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지역 사회 내 가족 형태 및 가족 생활의 다양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가족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가족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 중심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할 때 다양한 가족을 ‘어려움’과 ‘지원방안’ 중심으로 설명할 경우 이들을 ‘결핍’된 가족으로 명명될 우려가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는 가족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가족 내부의 역동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가치관 및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11종 가정 교과서 내 가족의 기능은 성, 자녀출산, 자녀의 양육·교육·사회화, 경제(생산과 소비), 애정, 정서, 보호, 휴식·여가·오락, 문화·전통 계승의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 가정 교과서에서 가장 강조한 가치관은 양성평등가치관의 강화였다. 건강한 가정은 교과서마다 그 정의와 특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바람직한 가족상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있었다.

기술·가정교과는 ‘가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유일한 교과이다. 따라서 우리 교과에서 ‘가족’에 대한 설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에 대한 신화나 통념에서 벗어나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교과의 성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설명은 계몽적 선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단원의 본문, 삽화, 활동, 읽기 자료 등은 청소년들이 가족경험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면, 이 연구는 분석의 초점이 된 ‘변화하는 가족’ 단원이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교과서의 독자가 중학교 2학년인 청소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했다. 또 교과서 지면의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성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연구가 기술·가정 교과에서 가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족을 덧붙인다 해도, 가족의 설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를 읽는 대상, 지면의 제한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한계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강운선 (2010). 제7차 사회·문화 교과서의 가족 단원에 대한 비판적 내용분석. **사회과교육**, 49(2), 33-52.
- 고성호, 김광기, 김상욱, 민수홍, 문용갑, 유홍준, 이성용, 이정환, 장준오, 정기선, 정태인, 정경한 (2007). **사회조사방법론(11판)**. 도서출판 그린.
- 고상욱, 전미경 (2006). 1920~30년대 가사교과서 육아단원의 의형 및 내용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135-149.
-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7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교육과학기술부.
- 김명자 (2000). **해방후 중학교 가정 교과서 변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유태명 (2004).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중학교 개정 교과서 삽화의 단원별 계량적 내용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4), 27-41.
- 김민혜 (2010). **고등학교 '사회문화' 및 '기술가정'의 가족 관련 단원 내용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서현, 윤영 (2011).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가정영역)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2), 73-86.
- 김성희, 장윤옥 (2007).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에서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의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1), 133-148.
- 김은경 (2007).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4), 137-151.
- 김은정 (2010). 가정과교육에서의 개정 교육과정의 과제와 방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2), 81-99.
- 김이선, 정해숙, 이미화(2009).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 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PR 2009-12-3).
- 김지영, 조병은 (2008). 구조기능론, 발달론 및 건강가정관점에서 비교한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 관련 단원 내용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1), 117-13.
- 김재인, 양애경, 허현란, 유현옥 (2000).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연구보고서 220-16.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민 (2007).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생활' 영역 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 박미정, 채정현 (2010).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 영역에 나타난 Bloom의 인지적 영역 질문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97-115.
- 박경란, 이영숙, 전귀연 (2001). **현대가족학**. 학지사.
- 박미정, 조재순, 장상욱, 이연숙 (2011). 한·일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녹색생활교육 내용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1), 1-17.
- 박윤경 (2005). 초등 사회과 '가족' 단원에 대한 내용분석. **시민교육연구**, 1.37(3), 51-84.
- 백정원 (20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과(기술·가정) 교과서의 초·중·고등학교 학년 간 연계성 분석: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현진 외 (2002). 실천적 추론이 비판적 사고 수업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3), 1-9.
- 손현희 (2009). 제7차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진로교육 내용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4), 145-158.
- 양정혜, 김지경 (2002). 구조기능이론의 관점으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나와 가족생활 단원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12), 1-11.
- 양정혜 (2006).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가족' 분석: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0(2), 195-215.
- 유영주 외 (2004). **새로운 가족학**. 신정.
- 윤인경 (2004).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 교과서 비교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4), 1-8.
- 윤인경 (2006).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 **직업교육학회**, 25(1), 21-41.
- 윤인경, 조병은, 한정란, 김영환, 장명희, 김명자, 박선영, 박윤명, 박길자 (2005). 교과서의 노인에 관한 내용분석 및 교사용 노인교육자료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1), 85-111.
- 이경숙, 유태명 (2011). Anderson이 개정한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체계'에 의한 2007 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제시된 인지적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3), 53-68.
- 이미영, 박미정, 채정현 (2010). 중학교 1학년 가정 교과서 활동 과제의 비판적 사고 수준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 지, 22(3), 19-36.
- 이민정, 유태명 (20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7학년 가정 교과서에 반영된 실천적 추론 과정의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2(4), 109-138.
- 이수희 (2010).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기초한 중등가정과 교과서의 현장적용을 위한 과제와 대안적 교수·학습 전략.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2(2), 133-153.
- 이종국 (1991).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지영 (2002). **초등학교 실과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 (2010).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의 ‘청소년의 자기관리’와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2(3), 55-75.
- 이진희, 채정현 (2008). Blended Learning(BL) 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4), 19-42.
- 이현지 (2005). 사회문화 교과서의 가족문화 영역에 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53(1), 301-318.
- 장상옥, 이연숙, 박미정, 조재순 (2011). 한국과 일본의 중등가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녹색생활교육.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2), 109-130.
- 전경선 (1999).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단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미경 (2004).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3), 1-25.
- 전미경 (2005). 1900-1910년대 가정 교과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1), 131-151.
- 전미경, 노영주, 이진경, 김자영, 김지영 (2007).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개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67-186.
- 정수경 (2004). **중·등학교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영역 연계성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5). **결혼과 가족의 이해**. (주)시그마프레스.
- 정옥분, 김정은, 박연정 (2005). 청소년의힘 북 돋우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3), 17-33.
- 정현숙, 유계숙 (2001). **가족관계**. 학지사.
- 조수경, 채정현 (2007). 타 교과와의 중복성 분석에 기초한 중학교 가정교과의 선행조직자로서의 개념도 개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2), 131-152.
- 조정문, 장상희 (2007). **가족사회학**. 아카넷.
- 조재순, 박미정, 장상옥, 이연숙 (2011). 한·일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녹색생활 학습자료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1), 19-36.
- 채정현, 박미정, 김성교, 한주 (2011). **가정과교육론**. ㈜ 교문사.
- 최영선, 윤인경 (2008).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사진 및 삽화 계량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1), 85-100.
- 최정혜 (2002).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4(1), 15-25.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10). **변화하는 가족의 사회학**. 교문사.
- Jaber F. Gubrium, James A. Holstein (1990). What is Family?. Mayfield Publishing Company. 최연실 외 역(1997).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우.
-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kice.re.kr>)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가정교과에 나타난 가족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술·가정 교과서의 목표 중 하나는 가족 대한 이해에 있기 때문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가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향후 가족에 대한 바람직한 기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2007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해설서와 11권의 기술·가정 교과서 중 8학년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가족' 단원의 비중이 커졌다. 또 청소년의 가족생활 능력의 함양을 위해 오늘날의 가족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강조하였다. 둘째, 11종 가정교과서에서 가족은 가족의 의미, 특성, 형태, 기능,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개 양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기술·가정교과서에서 가족은 '사회의 기본집단', '혈연, 결혼, 입양으로 이루어진 집단', '애정 집단', '동거 집단' 등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가족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기술은 청소년의 개별적 가족 경험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넷째, 가족 형태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 간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모든 교과서에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강조하였으나 핵가족 이외의 가족이 갖는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족 형태와 가족생활의 다양화를 이해하는 데 부족하였고 오히려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았다. 다섯째, 가족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간 대동소이 했으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이루기 위해 세대 간 협력과 양성평등한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기술·가정 교과가 가족생활의 성공을 위한 가족원의 능력의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설명은 개별 가족의 역동이나 특징을 무시한 계몽적 선언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 현상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천적 문제 중심의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2월 8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5월 25일